**David deSilva 박사 , 신약의 문화 세계, 세션 6, 읽기 1 친족 구조와 가치에 적응한 베드로**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신약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 입니다 . 이것은 세션 6, 친족 구조와 가치에 조율된 피터 1권을 읽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친족 관계, 친족 집단의 형성, 친족 집단의 정신, 그리고 이전의 자연적 가족을 지배하는 종류의 규칙에 관해 배운 내용을 사용하여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적 전략, 즉 저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다루는 베드로전서의 목회적 전략을 조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예와 수치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의 목회적 배경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를 들어 현대 터키의 서쪽 절반, 현재 터키 서부에 있는 로마의 속주, 5개 주에 걸쳐 있는 일단의 회중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들을 그들이 떠나온 정상적인 생활 방식과 가치관으로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 모욕, 비난,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소외 등 온갖 수치스러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명예와 수치심에 대한 고려와 함께 친족 언어도 수신자의 곤경에 대한 저자의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저자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경험한 새로운 가정으로의 새로운 탄생의 사실과 방식에 주목한다. 그는 또한 새로운 가족으로의 새로운 탄생이 신자들, 개종자, 그리고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그들이 남겨둔 자연적 친족 집단 사이에 부과하는 거리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편지 첫머리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읽습니다.

그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마찬가지로 1장의 끝 부분에서 그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좋은 소식이니라.'”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신뢰하여 응답하는 행위, 즉 사실상 둘째 낳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심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탄생, 많은 경우에 개종자들이 떠나야 했던 가족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가족,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친족 그룹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탄생과 이 공통의 혈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룹은 2:17과 5:9에 나오는 용어인 형제애가 됩니다. 이 새로운 가족으로의 새로운 탄생은 큰 이점과 특권, 즉 듣는 사람의 자연적인 탄생보다 더 큰 특권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필멸의 생명만을 주는 씨앗이 아니라, 시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수한 씨앗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더 큰 유업, 즉 이 집의 가장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메시아께 속한 영광과 존귀를 썩지 않는 삶에서 영원히 누리는 가문으로의 탄생입니다.

듣는 사람의 첫 번째 탄생, 즉 자연적인 친족 집단으로의 자연적인 탄생은 그들에게 한 종류의 유산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무지, 불경건한 전통,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서 태어난 가치의 유산이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할 만한 더 나은 상속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고 응답한 결과로 그들의 명예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타고난 출생에 따른 명예나 지위를 잃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또는 그 결과로 그들은 친부모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일원이 된 가족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가족으로의 새로운 탄생은 특별한 윤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첫 번째 의미는 개종자가 자신의 새 부모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주요 본문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는 부모가 부모의 성품을 닮도록 자녀를 형성하고 형성하는 자녀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 격려해야 합니다. 저자는 바로 다음 절에서, 공평하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관련된 두 번째 윤리적 의미는 신자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신자들이 진실한 형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마음을 정화했다고 썼습니다.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는 플루타르코스가 형제애에 관한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형제자매의 특징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저자는 그들에게 형제자매의 사랑을 실천하는 필라델피아 사람, 형제자매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 내 상호 작용에 대한 이 저자의 설명에서 형제 관계를 이끄는 더 큰 문화 윤리인 필라델피아 윤리의 여러 측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성경 읽기 슬라이드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장 22절에서 저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형제애를 사랑하십시오. 4:8에서 그는 사랑이 상처를 극복하는 정신의 측면, 즉 친족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과 모욕은 보복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들 사이에서는 모욕과 상해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하며, 대인 관계에 대한 모욕에 반응하고 이를 증폭시키기보다는 덮고 옆에 놔두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모든 위선과 시기와 모든 중상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기만, 가식, 시기 등은 고대 세계의 경쟁자들의 특징이지, 서로의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친족은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기보다는 보호합니다.

저자는 또한 3.8절에서 한 마음과 동정심과 형제 우애와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고대 세계의 형제자매를 특징짓는 조화와 단결에 특히 어울리는 특성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1세기의 전체 기독교 운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모임의 모임이 환대, 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그들의 집, 즉 물리적 집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서로 대접합니다.

환대는 그룹 모임에서부터 선교사와 교사의 지원, 다른 교회의 기독교 대표자들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운동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환대가 없었다면 기독교 그룹은 성장하는 교회 네트워크를 만나거나 지원할 사회적 위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드윈 해치(Edwin Hatch)라는 고전 학자 는 1세기 지중해 전역의 기독교 집단에 대한 매우 훌륭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낯선 사람들은 동서양의 모든 주요 상업 경로가 있는 도시를 끊임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을 지닌 낯선 사람들은 모두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형제애였기 때문에 존재했고 성장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실제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어디를 가든 환영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자 1 Peter는 고전주의자가 나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문화에 기여합니다.

이 문화는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가족의 의무를 서로에 대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고전주의자인 에드윈 해치(Edwin Hatch)의 눈에는 고대 세계에서 기독교 운동이 성장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자연적인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의 개종이 어떻게 그가 아버지, 남편, 주인인 자연적 가족 전체의 개종으로 이어지거나 이를 포괄하는지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간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개종한 고린도의 스데파노에게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이 운동, 즉 초기 기독교 운동은 가장이 된다는 이유로 필연적으로 온 가족을 교회로 데려오는 가장들과 앞서 언급한 이들과 같은 기독교 가장들이 환대를 베풀려는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고난 기독교 가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에베소서 5장과 6장 또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가정 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4장과 딱 들어맞으며, 베드로전서 2장과 2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 규정도 있습니다. 3.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기독교 가정 내에서 역할과 행동을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전복적인 기독교적 근거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는 달리 몇 가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예, 아내, 남편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예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와 아내에게 연설할 때 주로 비그리스도인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신 그분의 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경하는 것을 보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순수한 행동. 너희 단장은 머리를 땋고 금 장신구를 차고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 같으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무서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내에 대한 고전적이고 유대인의 이상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1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복종의 이상을 봅니다. 너희 단장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되 순종과 침묵으로 단장하라 (3:4) 그리고 또한 그는 3장 5절과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자들의 대표로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한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봅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그 이상 안에 있는 침묵의 측면은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말없이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저자는 여기에서 비기독교인 남편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전도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최소한 기독교 신앙고백과 신앙에 대한 존경심을 얻는 수단으로 비기독교인 남편의 좋은 아내 이상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방식. 그리고 나서 3장 6절에서 그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사라의 자녀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무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자녀니라.”

아마도 이것이 최선의 번역은 아닐 것이고, 어떤 협박이라도 더 나은 번역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자는 여기서 다시 사라의 혈통을 공유하는 형태의 가상의 친족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을 위해 베드로전서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그들의 과거를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다른 많은 것들로 특징지어진 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날마다 했습니다.

물론 음행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상 숭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가상의 친족 관계를 적용합니다. 선을 행하고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저자인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모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혈통과 연결되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았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역동성이 있습니다 .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점에서 비기독교인 남편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역학이며, 이것이 가정 종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남편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문화적 이상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결혼에 관한 조언에서 아내는 자신의 친구를 두지 말고 남편의 친구를 공동 주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신들만을 숭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상한 종파와 외국의 미신에 대한 문은 닫혀야 합니다. 어떤 신도 여자가 은밀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숭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비기독교인 남편의 아내는 가정의 신들의 우두머리인 남편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가정의 결속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고 오직 한 신만을 숭배하겠다는 결심을 진지하게 실천했다면 그녀는 가정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집의 아내는 눈에 띄게 과묵하거나 심지어 부재하는 반면, 가장인 남편은 가정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본 모든 증거를 말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고대 가옥에 대한 모든 증거는 적어도 로마 세계에는 속(genus), 가족의 정신, 수호신, 가족의 라레스(lares )가 아마도 남편이 그곳에 배치하고 그곳에 있기로 결정한 다른 신들과 함께 숭배되는 사당, 국내 사당이 눈에 띄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사실상 모든 로마 집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가정 종교를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는 그 곳을 피하고 있을 것이고, 그 시점에서 집안에 많은 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민 의식이나 공공 의식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친구와 동료들에게 경건한 아내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쾌한 일이겠지만, 만일 그녀가 그리스도인 모임에 모이러 간다면, 그 여자는 집을 떠나 낯선 사람들, 남편의 주변에 없고 남편의 감독도 없이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이 분야의 제출을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빚진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순종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남편이 그녀의 이상한 종교적 행위를 관용한다면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삶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행동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충성이 실제로 그녀를 더 훌륭하고 더 기쁘게 하는 아내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저자가 비기독교인 남편이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만두고 단념하도록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에 저자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 남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가 말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전 강의에서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3:7을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ESV와 NIV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와 함께 지혜롭게 지내고 약한 그릇인 여자를 존중하라 그들은 생명의 은혜를 너희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임이니라.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 따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와 함께 생활할 때에 그들을 좀 더 약한 동역자로 여기고 은혜로운 생명의 선물을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그 어떤 것도 너희 기도를 막지 못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번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KJV, RSV 및 기타 번역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는데, 아내와 함께 살며, 아내를 존중하고, 두 가지 동기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고, 당신의 아내는 생명,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번역은 모두 1번 명령을 제시한 다음 2번 명령을 제시하고 두 동기 모두 2번 명령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은 남편이 첫 번째 동기에 따라 첫 번째 행동을 하고 동기에 따라 두 번째 행동을 하라고 지시받는 그리스 자체의 구조에 명백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헬라어를 읽은 바에 따르면 남편들 또한 여성의 연약한 그릇과 같이 너희 아내와 상당히 동거하며 그들을 생명의 선물을 너희와 함께 상속할 동료 상속자로 공경함이라 너희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방해했다. 여기서 내가 요점은, 저자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남편이 약한 그릇을 향한 관대함의 몸짓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존경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남편과 함께 지으신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의 공동 상속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고전 윤리학자들은 첫 번째 교훈과 그 동기를 인식하고 동의했을 것이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들보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더 취약하기 때문에 배려해야 합니다. 고전 윤리학자들은 이에 동의했지만, 두 번째 교훈과 그 동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기독교적 전환을 구성합니다. 사실,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하느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맺게 된 형제 관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고대 세계의 남편과 아내의 필연적인 위계 관계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같은 부모의 동료 자녀인 고대 세계의 보다 평등한 형제자매 관계에 의해 다소 재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한 저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논쟁을 쉽게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가 단지 결혼에 대한 고전적이거나 유대적인 규범과 가치를 모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결혼의 역동성에 새로운 것이 개입되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관계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종들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종들아 범사에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한 자에게나 온유한 자에게 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복종하라라고 썼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니라.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이 구절에서 저자는 가정 하인을 뜻 하는 오이케타이(oiketai)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그는 도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가정 노예를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교회가 확산되는 방식에 적합합니다. 그는 또한 본질적으로 주인에게 주어진 상호 지침이 없고 저자가 주인에게 구부러진 대신 좋은 사람으로 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비기독교 가정의 노예에게 말하고 있다고 본질적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주인.

이러한 비기독교인 가정의 노예들은 비기독교인 남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더 심각하게는 가정의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며, 심지어는 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관용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노예들에게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계속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기독교 운동이 로마 제국 경제의 중추, 즉 노예 제도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기독교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주인으로부터 필요한 호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모험에서도 저자는 2.19에서 노예의 양심에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바탕으로 죄가 무엇을 의미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정당한 처벌을 받는가? 나는 언제 부당한 처벌을 받는가? 저자는 종에게 그가 언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지, 아니면 언제 행동할지, 따라서 주인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도덕적 결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자가 이 그리스도인 종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언할 때, 그는 실제로 어느 정도 불복종을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삼가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주인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밖의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주인보다 하나님께 계속 순종할 것이며,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데 대해 계속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인 충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복종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노예의 주인은 노예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만일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여 자기 종들을 처벌한다면, 이 주인들은 불의하게 행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악하고 구부러진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종들에게 주어진 지시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시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노예는 모범적인 시민이 아니며 행동 모델이 되기 위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는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노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당한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주인으로부터 종의 합당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세계.

두 노예 모두,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노예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두 장 뒤에는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위해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촉구합니다. 한편으로, 베드로전서는 가정에서 아내의 견해와 역할이나 가정에서 노예의 견해와 역할에 있어서 결코 해방주의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자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와 구조 자체에 대한 청자의 사고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도전을 보여주거나 몇 가지 흥미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나는 주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하나님 아래 있는 자매의 형제로서 내 집에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것입니까? 집회 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교회의 가장 낮은 구성원으로 계속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교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따라서 저자는 두 점수 모두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대위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가족으로서의 기독교 운동,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입양을 통해 서로 자매와 형제가 되는 친족 집단으로서의 기독교 운동, 그리고 이 사상에 수반되는 윤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신자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개별 신자의 변화와 활력 있는 양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잘 교류하고 심지어는 친밀하게 교류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아닌 매우 따뜻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족으로서 내 삶의 의미 있는 부분이 되어온 일곱 교회 중 한 교회만을 혈연관계에 기초한 친족관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그룹으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피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일부로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종의 종교적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 자매로 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우리 부모님, 친부모의 아들딸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미혼모가 교회에 와서 자신이 일하는 동안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 공동체를 찾았다면 어떨까요? 하루하루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낮 시간 동안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가족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일한 부모이자 유일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만약 불화하는 그 두 교인과 여러분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불화를 겪고 있는 두 교인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 옆에 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제 경험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교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말다툼을 벌여온 우리 자연가족의 이야기.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연 가족 중 일부는 사실상 우리를 앉혀놓고 이제 이건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원만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불일치를 제쳐두겠습니다. 죄가 발각된 사람이 주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수치심을 과시하고 쫓아내기보다는 그 사람의 수치심을 실제로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느끼게 만드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곤경에 빠지고 엉망이 된 친족 집단의 구성원을 회복하고 돕고 키우려는 동일한 열정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대했다면 어떨까요? 기독교 교회는 어떤 강력한 문화, 어떤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문화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교회, 교파, 국경을 넘어 교회를 이러한 용어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지금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교회가 신속하게 그들과 함께 와서 가능한 모든 물질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들의 대의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박해를 받거나 소외당하고 있을 때와 같은 열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이것이 바로 신약성서의 작가들이 기독교 운동에 심어주고 싶었던 일종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단순히 같은 자원 봉사 조직에 속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매와 형제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더 많이 구현할 수 있을수록, 교회의 증거, 교회의 인내, 교회의 성장이 더욱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나고, 내가 찾은 고전 텍스트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2세기와 3세기 기독교 운동에 대해 비기독교 외부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확장한 과도한 사랑과 수용이었습니다. 간증은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치르고 친족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곳의 교회에 대해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 입니다 . 이것은 세션 6, 친족 구조와 가치에 조율된 피터 1권을 읽는 것입니다.